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이란?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3절에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온 사실이 묘사돼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어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는 사명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탄생은 성령 강림의 놀라운 힘에서 비롯됐습니다.

선교분과와 전례분과 주관으로 마련된 오늘 “성령칠은 카드 뽑기” 행사는 사도들이 성령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고 세상에 파견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고 특별히 자신이 뽑은 성령의 은사를 삶에 반영해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내가 뽑은 성령의 은사는 어떤 뜻일지 성령칠은의 의미를 알아보시다.

출처: 가톨릭 신문

지식

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준다. 이 은사를 통하면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게 해준다. 물질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노력하면 이 은사가 활발해진다.



효경

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다. 이웃을 용서하고 진실히 사랑하게 해준다. 이 은사는 모든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식하면서 대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 만물을 존중하도록 힘써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슬기

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준다. 이 은사를 북돋우려면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로 사물을 보지 말고 신앙 가르침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의견

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게 한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을 풀어나도록 도와준다. 이 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겸손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를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청해야 한다.



경외심

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다. 이 은사는 죄를 피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희망을 품게 한다. 이 은사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면 복돋을 수 있다.



통달

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재를 보게 해준다. 이 은사가 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강림 때 사도들이 마리아와 기도했듯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용기

은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이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게 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돕는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 은사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

2022년
6월 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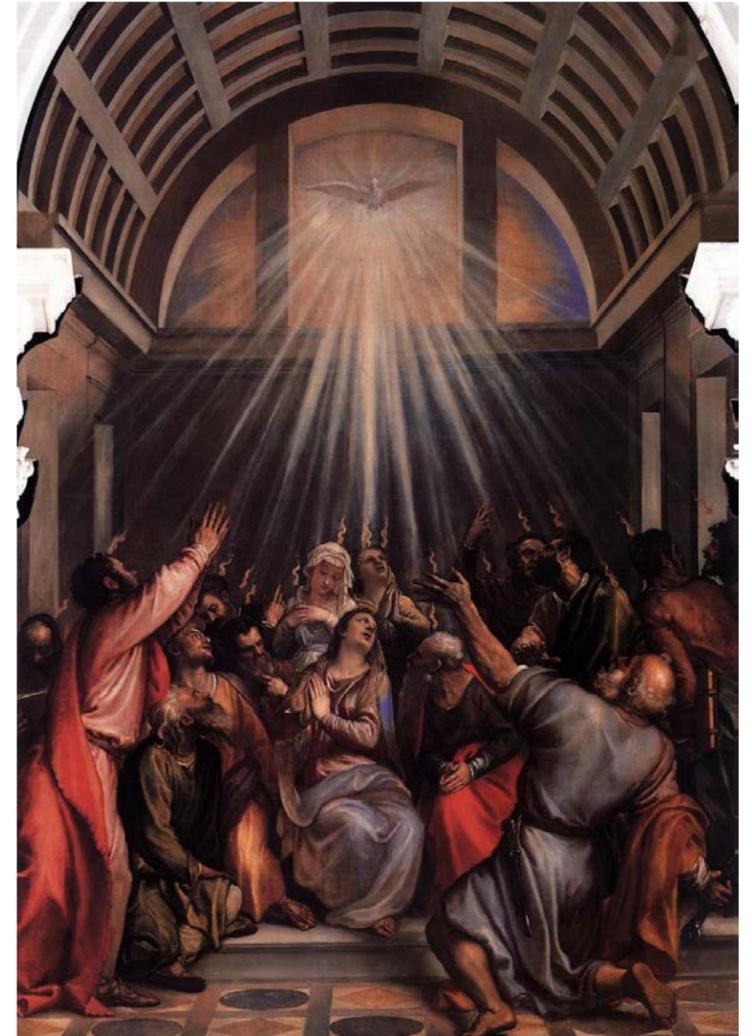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 # 화답송 시편 104(103), 1ㄱ과 24ㄱ,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3ㄷ-7,12-13
- # 복음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 성가번호 입당 143 봉헌 210 성체 158 파견 145

미사지향 (연미사)

- 오옥순(수산나) - 가족, 노스브런스워 구역, 정 데레사 변인순(엘리사벳), 김순옥(올리아)
- 이근수(세례자 요한) - 박재영(요아킴)
- 김진철(요한)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이성현 - 이재구(프란치스코)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변태용(요셉)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올리아나) - 박재영(요아킴), 장 아폴로니아, 성 라파엘라
- 김용무(데레사) - 박재영(요아킴)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 장 아폴로니아
- 소형덕(베드로) - 나채국(제노) 가족
-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 허정(아나스타시아) - 이서형(요안나)
- 김시온, 김별 - 김삼식(베드로) 가족
- 문마린(마리나) - 최정원(레지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05명).....\$1,212
 - 2차 헌금 (Catholic Comm. Campaign).....\$427
 - 교무금.....\$1,020
- | | | |
|-----------|-----------|---------|
| 곽신규 (3-4) | 염기선 (5) | 백상헌 (6) |
| 최영찬 (5-6) | 임문수 (5-6) | |



2차 헌금 안내

• 6월 19일: 유틸리티

6월 부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성월기도와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Father's Day Mass Remembrance

• 6월 19일 아버지날 영적선물로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전례분과 피정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성당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5/27까지 약정금액은 \$39,559 (목표금액의 113%, 117가정 참여)입니다.

프린스톤 한국 순교자 성당 주일학교 후원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2022년 6월 18일 (토) 오전 11시 집합
- 장소: 뉴저지 프린스톤 인근 오크 골프장 웨스트코스 Mercer Oaks Golf West Course 725 Village Rd. W, West Winsor Twp, NJ 08550
- 참가비: 120불(점심, 저녁, 음료, 상품 포함)
- 저녁식사: 프린스톤 성당 1130 Brunswick Ave. Trenton, NJ 08638
- 참가신청 및 문의: 강완모 (908-391-9809) 최현식 (732-343-0392)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성당 헌금 봉투(빨간색, 초록색) 를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3c-7.12-13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요한 복음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